

시연(施連) 칼럼

안동권씨 좌윤공파종회 성역화사업(聖域化事業)



권오신
칼럼니스트, 안동권씨좌윤공파종회장

안동권씨 좌윤공파종회(安東權氏 佐尹公派宗會, 회장 권오신權五信)는 2021년 5월까지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잣밭골 좌윤공파(佐尹公派) 천년(千年) 세장(世葬)에 4만 명 후손들의 숙원이었던 파조(派祖, 10世 高麗 佐尹 諱 至正)와 추밀공(樞密公, 11世 高麗 樞密院府事, 軍器監, 諱 世位), 병부정랑공(兵部正郎公, 12世 諱 良俊), 문과공(文科公, 13世 諱 粹)의 단소(壇所) 설치공사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안동시 정하동 고지곡에 쓰인 16세 문정공의 묘소를 고려(高麗)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15世 諱 用一) 산소 밑 자리에 이장(移葬), 아버지와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간 칠백(七百)년 만의 해후(邂逅)가 이루어지고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던 상계(上界)의 유택(幽宅)을 잣밭골에 모시는 성역화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좌윤공파 종회는 2020년 8월 안동시(安東市)로부터 잣밭골 일원 6백 평에 “좌윤공파 추모공원” 설치공사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말까지 기본 조성공사 등 토목공사를 마무리 짓고 비석 설치 등 석물 시설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3월부터는 합계단 설치공사에 들어가 5월까지 1차년도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파조(派祖) 좌윤공(佐尹公)의 제액(題額)과 비문은 행정자치부장관과 20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대학장을 지낸 영일인(迎日人) 정종섭(鄭宗燮) 법학박사(法學博士)가 있고 1,600자 분량의 음기(陰記)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이었던 밀양인(密陽人) 박용실(朴龍高) 선생이 썼다.

추밀공(樞密公) 비문은 성균관(成均館) 부관장과 우리 시대의 마지막 유학자(儒學者)이신 안동인(安東人) 김창회(金昌會) 선생이 짓고 제액(題額)은 파조(派祖)의 음기(陰記)를 쓰신 박용실(朴龍高) 선생이, 정랑공(正郎公)은 권기갑(權奇甲, 방후손(傍後孫) 선생이 짓고 제액(題額)은 한영구(韓永九, 서예대전 초대작가) 서예인이, 문과공(文科公)은 정무공(貞武公) 주손(胄孫)이신 경주인(慶州人) 최채량(崔埰亮) 선생이 짓고 전편 대자를 썼다.

석등은 통일(統一) 신라(新羅)의 석등 형태로 조각하는 등 예술적 아름다움을 한껏 살려 후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좌윤공파 추모공원 조성작업엔 예산 3억 원이 들어간다.

추모공원 조성공사에 이어 안동시 정하동 고지곡에 쓰인 문정공(文靖公, 16세 고려감찰 규정(高麗 監察糾正 諱 희정 希正) 내외분(內外分)의 묘소도 부친(父親)이신 고려(高麗)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15세 諱 用一) 묘역 산려 2백 평의 부지에 모시기로 하고 2021년 1월 5일 안동시(安東市)에 묘역 조성공사 허가를 신청, 산지 전용에 따른 심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좌윤공파 후손들은 파조에서 자신의 선고(先考)에 이르기까지 묘소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중증이 된다.



파조 봉분

제사비요(祭祀備要)



능스能素 권진택 權貞澤
성균관 전례사典禮師

제사(祭祀)의 종류(種類)

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차례(茶禮) 혹은(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 三月三日), 단오(端午, 五月五日), 유두(流頭, 六月十五日), 중앙(重陽, 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고 또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 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 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 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 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 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 형태로서 이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유택(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하계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이년 이월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 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 이하와 일반 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조선 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 이상이 사대(四代), 육품(六品) 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 이하는 이대(二代), 일반 서인은 부모만을 지내게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2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 된 기제사(忌祭)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 당대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 당대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매투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 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가 검은 것과 흰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펴 풀이 있으면 밟조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그리고 참신, 강신, 조현,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淸明)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즘은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밟조하여 손질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祭主)가 분향하고 잔을 올린 뒤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 번만 올린다.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 달 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 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부제(附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 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걸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다음호에 계속)

입춘 휘호



園中華笑聲未聽

원중화소성미청
동산에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林中鳥啼淚難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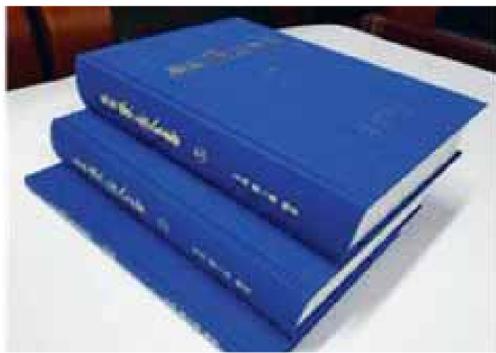
임중조계루난관
숲속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네

신축유년 초춘초충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근배謹拜

입춘을 맞이하여 근당 권태은은 족친이 입춘휘호를 보내왔다. 송나라 아부조부 스님의 선시(禪詩) 중의 한 구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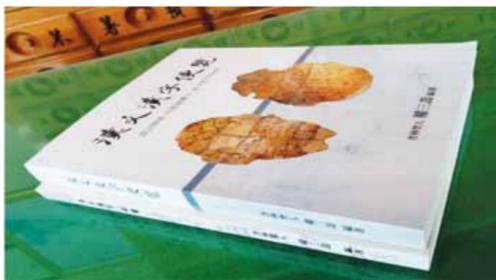
校註 景岳全書 출간!

杏林棼人 螢雪寒苦20星霜에 완성한 金字塔 醫藥史上 가장 精確한 <景岳全書> 64권 출간!



全書의 該博한 내용으로 활용성이 우수하며 便覽性이 뛰어난 不朽의 決定版!!
漢醫學 研究家에게는 必須 指針書로서
韓醫學 入門者에게는 必用 教科書로서 大寶典!!
原典 精粹의 광범위한 傳授를 위한 帕격적 보급 특가
最高級洋裝 上·下·附錄 3冊 全帙(국배판2272면) 정가: 180,000원
懸賞金: <景岳全書>原文(100萬字)중 校註 一字當 10,000원 지급

<漢文漢字便覽>
각종 漢文原書 讀解에 필수 참고서



●虛詞精解 追從不許 勿驚 6천2백여 題字 收載
各種 漢韓大辭典 中韓辭典은 물론 우리의 口語에서도 採錄
●中國簡體字의 完壁한 가나다順, 劃順 總整理
●漢字의 製字原理 부수글자의 어원 갑골문자
정가 (46배판 422면) : 38,000원
<漢文漢字便覽>은 <景岳全書>는 물론 모든 漢文原書를 解讀 할 수 있는 虛詞를 방대하게 收載함으로써 原文 理解의 길잡이이고 열쇠이기 때문에 便宜上 <校註景岳全書>와 함께 공급합니다.
◇합계 218,000원

장계출판사 신간안내

東醫驗方續纂

大韓韓藥協會 學術委員會編
大韓韓藥協會 韓藥業士 畢生의 經驗祕方集
消滅 死藏위기의 1600여 祕方들을 採錄
최고급 양장 46배판 848쪽
정가 400,000원 → 70,000원·잔여 200권 선착순

景信醫方

景信 李忠憲 原作 長溪 權三壽 編著
辨證奇聞과 石室祕錄의 眞髓를 總整理
千古絶奇의 變證에 正答을 提示한 奇書
802要方을 證治別로 分類한 臨床便覽書
46배판 313쪽 정가 30,000원

醫窓匯編 近刊

杏林棼人 權三壽 編著
東洋醫籍의 解題와 序文 跋文의 完譯
古籍의 理解와 書誌學 研究의 筌蹄
기타 다수의 長溪逸稿 등 收載
46배판 473쪽 정가 30,000원